

韓國의 資本主義의 倫理

李 甲 燮*

<目 次>

- I. 序 言
- II. 韓國的 資本主義精神의 發現形態
- III. 致富-出世追求 精神
- IV. 傳統的 思想과 變形된 利己主義
- V. 結 語

I. 序 言

모든 사회는 그 나름의 독특한 經濟活動樣式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독특한 生活態度와 意識形態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의 생활태도와 의식형태는 경제발전의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經濟活動과 社會行動의 양식과 모습에 대해서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사람들의 생활태도와 의식형태가 경제활동의 양식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가장 전형적으로 잘 논한 이론은 Weber에 의한 ‘프로테스탄티즘과 資本主義精神’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근대 유럽자본주의사회에는 프로테스탄티즘 倫理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資本主義精神이 있었고 이것이 西歐의 근대적 산업자본주의를 일으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였다.

자본주의정신은 흔히 두 가지로 구분되기도 한다. 個人的 營利慾에 의해 利潤追求를 지향하는 精神과 禁慾的, 倫理的 職業觀에 의해 利潤追求를 지향하는 精神이다. Weber는 전자를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反倫理的인 卑賤한 것이라 하였고 후자야말로 近代의 產業資本主義에 적합한 것

* 成均館大學校 經濟學科

1) Weber, M.,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Archiv f. Socialw. u. Socialp.*, Bd. 20, 1904, Bd. 21, 1905.

이라고 하였다. 전자는 인간의 感性的 慾求인 營利慾과 같은 것이고 賤民的인 것이며, 후자는 近代의이며 合理的이며 獻身的인 것이라고 하였다. Weber에 의하면 개인적 영리욕에 급급한 賤民的 資本主義精神은 貨幣收入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어도 이것이 곧 蓄積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蓄積을 위해서는 인간의 개인적 욕구를 억제하는 禁慾的 倫理觀의 확립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 한국의 경우는 어떤 생활태도와 의식형태가 지배하면서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한국의 경우에도 자본주의정신과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어떤 모양으로 발현되고 있는가. 한국경제의 이해를 위해서도 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아닐 것이다.

II. 韓國的 資本主義精神의 發現形態

한국적 資本主義精神이라 하지만 그것도 時代的 狀況에 따라 다르다. 여기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주로 경제적으로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듭하였고 정치적으로는 국가권력이 비민주적으로 집중되었던 60년대 이래의 약 30년에 걸쳐 일관되게 많은 사람들의 경제활동양식을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지배하여 온 전형적인 生活態度와 그 意識形態 또는 經濟倫理觀에 관한 것이다. 이미 필자는 다른 기회에 '한국 資本主義의 病理'라는 논제로 이를 논한 바 있다.²⁾ 이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결론적인 特徵만을 약간 보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 致富를 위해서라면 한국사람들도 열심히 일하고 악착같이 일하는 편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로지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致富와 出世를 위한다는 두 가지 動機 때문이다. 사람들은 致富로만 만족하지 않고 身分地位의 上昇과 官職의 획득 등으로 出世를 하여야 한다. 또 단순한 出世로만 만족하지 않고 致富를 하여야 한다. 致富動機만이 아니라 出世動機까지 겹쳐 相乘作用하기 때문에 그 動機는 強烈性を 띠게 된다. 이는 그만큼 韓國資本主義社會가 신분 지위와 관직을 중시하고 그 효용이 또한 높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致富와 出世로 비로소 富와 貴를 함께 누릴 수 있고 안심을 할 수 있는 것 같다. 이러한 動機成就의 希望이 있는 한 한국사람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한다.

2) "韓國 資本主義의 病理," <1>~<13>, 서울經濟新聞 1991. 4. 2~5. 1 중 연재.

ii) 한국자본주의 하에서의 出世動機 즉 貴의 追求는 典型的으로는 官權지배 사회가 인정하는 官僚的 出世를 위한 것이다. 貴의 달성으로 富는 비로소 完全한 것이 된다. 貴는 富를 造出하기도 하고 保護하기도 하는 기능과 효과를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iii) 60년대 이래의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하면 된다’는 信念의 수많은 사례를 만들어 내었다. 이는 최단시일 안에 富貴榮華를 성취하고자 말겠다는 초조하고 조급한 심정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바람에 사람들은 온갖 고통을 참고 맹렬히 일하며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었던 것이다.

iv) 그러나 사람들은 일단 일정한 성공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되면 關心 對象共同體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이를 자랑하고 誇示하며 성공에 상응하는 행동을 취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노동을 기피하고 소비지출을 과시한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성공하지 않아도 身分上昇의 效果를 누리기 위해 虛僞, 虛榮, 虛飾을 하며 體面의 向上을 꾀하기 위해 무리를 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v) 아직도 勞動과 職業의 귀천을 따지는 사상이 뿌리깊다. 육체노동이나 생산직종이 천시되고 사무직이나 관리직이 선호되고 官職經歷이 중시된다. 성공하면 직업을 바꾸고 업종을 바꾸는 일이 많다. 天職意識이란 거의 없고 있다 하여도 貴를 누릴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쉽게 출세기회를 얻기 위해 고도의 教育熱이 발취되고 있다.

vi) 많은 기업들은 官權에 의존하고 官權을 이용하여 쉽게 致富目的을 달성하여 왔다. 이 일을 특히 잘하는 企業家가 유능시되는 것이다. 또 그러기 때문에 官權에의 접근이 쉬운 정치가출신, 군출신, 행정·금융관료출신 등이 많이 전문경영자로서 영입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한국적 企業家精神에는 政經癒着的인 성격이 강한 면이 있다.

vii) 企業主는 企業을 私物視하는 경향이 강하다. 기업가는 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기업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필요에 따라 기업가는 스스로의 個人的 利益을 위해 기업을 희생하기도 한다. 종업원을 運命共同體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意識이 부족하다.

viii) 기업주가 기업의 이익보다 스스로의 個人的 利益을 더욱 챙기는 것처럼 從業員도 기업의 이익보다 스스로의 개인적 이익을 더욱 챙기는 경향이 있다. 愛社心이 부족하고 勞使紛糾가 왕왕 극한적으로 되는 것도, 그리고 종업

원의 동일직장근무연수가 짧은 것도 이 때문이다. 종업원도 공동체의식이 부족하고 利己主義를 밝히는 것이다.

ix) 사람들이 身分職位의 상승을 추구하고 관료체제상의 출세를 지향하는 경향이 강한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이로써 더욱 쉽게 致富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出世를 하면 어쨌든 致富를 하는 수많은 사례를 보여주었다. 그만큼 公僕者精神이 부족하고 一身의 榮華榮達만을 추구하는 利己主義가 왕성한 셈이다.

x) 官僚的 出世志向의 行動은 단순히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다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豫算擴大, 民間部門의 準政府部門化, 政府部門의 外形的 民間部門化 등 活動領域과 權限의 擴大를 통해서도 추구되며 公式的 經路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非公式的인 방법으로 추구되기도 한다. 심지어는 관료들은 퇴직 후에도 어떤 형식이든 特權을 행사하려고 하는 일이 허다하다. 市場經濟原理에 어긋나는 이와같은 官僚的 特權이 수용되고 존속되는 것은 이를 당연시하고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 한국사회경제의 독특한 官僚支配的 特質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한국적 자본주의정신의 발현형태는 이와같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기본이 되는 意識形態 또는 경제활동의 基本動機는 한마디로 致富도 하고 出世도 하겠다는 두 가지 慾求 즉 致富-出世追求精神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이 두 가지 욕구가 겹친 利己主義가 흐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찌기 전통적 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생활태도와 의식형태가 경제의 급속한 자본주의적 발전과 더불어 형성되고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II. 致富-出世追求精神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富의 추구를 至上으로 하는 사회이다. 富의 추구하고 형성 그 자체가 곧 出世 즉, 貴의 추구하고 형성을 뜻하는 것이다. 貴를 특별히 따로 추구할 필요가 없다. 일반적으로는 貴가 富 이상의 기능이나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富의 추구만이 아니라 貴의 추구를 또한 하여야 한다. 그만큼 貴가 富에 못지 않게 중요한 기능을 다하고 중요시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貴가 훨씬 富를 능가

하는 기능을 다하고 가치를 갖기도 한다. 바로 이런 뜻에서 한국자본주의는 富貴資本主義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富와 貴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은 富만을 추구하는 단순자본주의 또는 순수자본주의보다 복잡한 면이 있다. 경제활동이 직접적으로는 物質的인 富의 추구에만 그치지 않고 社會的 身分地位의 上昇을 추구한다는 뜻에서 그것은 賤民的이라기보다는 다분히 高貴한 측면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貴가 갖는 특별한 경제적 기능과 효용 때문에 俗物性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부귀자본주의는 고상성과 속물성, 우아한 면과 추악한 면이라는 이중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치부주의와 출세주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부귀자본주의는 富貴榮華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사상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사상과 다른 것이 있다면 한국적 전근대적 전통적 사회에서는 富만의 성립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고 富는 貴의 속성과 같은 것이었다. 양자는 一體的인 것이었고 귀의 성취가 곧 부의 성취를 가져온 데 대해 부귀자본주의 하에서는 富와 貴가 반드시 일체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부귀의 성취방법에 있어서도 富의 성취에 의한 貴의 추구하고 貴의 성취에 의한 富의 추구라는 두 가지 길이 열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官僚支配的 封建社會에서의 그것과 분업이 추구되고 있는 官僚資本主義 하에서의 그것과는 같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부와 귀를 함께 누리하고자 하는 富貴榮華思想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성이 있다.

경제의 자본주의화 발전은 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놓았다. 부는 오로지 관직의 부산물도 아니고 관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였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를 가질 수 있고 富의 蓄積으로 귀를 압도하고 능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사람들은 貴가 따르지 않는 富만으로는 아무래도 천하고 속된 것으로 알고 불완전한 것으로 아는 것이다. 사회경제의 자본주의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부와 귀를 아울러 가지려 하는 전통적인 부귀영화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왜 한국사회에서는 이토록 부귀영화사상이 뿌리깊은가. 그것은 역시 한국사회에서는 아직도 이념적으로는 兩班思想이 숨쉬고 있으며 官尊民卑思想이 뿌리깊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반이 되기 위해서는 벼슬을 하여야 하고 벼슬을 하지 않는 사람은 설령 아무리 돈이 많아도 비천하다고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것은 아직도 한국사회에서는 富의 효용에 못지 않게 貴의 효용이 크고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반사상은 體面維持思想과 결부하여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하겠다. 사람들은 양반이 될 수 있는 외형적 과시적 조건을 가장 잘 충족할 때 양반이 된다고 믿고 있다. 설령 양반이 될 수 없다하여도 이에 준하는 입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보다 나은 體面維持를 하여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Benedict는 일본인의 행동과 일본의 文化를 羞恥를 기초로 한 것으로 정의하여 西歐의 罪의 文化에 대비하였지만³⁾ 한국사회에서는 體面의 文化, 體面共同體와 같은 것이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체면유지 사상은 오로지 출세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치부를 위해서도 그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양반사상, 관준민비사상, 체면유지사상 등 일련의 관료적 출세주의사상은 전통적으로는 다분히 儒敎지배사회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유교지배사회에서는 이념적으로는 유교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직에 올라야 하고 관직과 지위의 상승으로 그 길이 더욱 열리게 된다고 생각되었다. 또 제도적 또는 경제적으로는 科擧에 의해 관료적 출세의 길을 걷는 것만이 부를 획득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관료적 출세주의사상은 유교이념지배적 정치제도가 물러난 후에도 계속 뿌리를 내려 왔다. 즉 출세주의사상은 자본주의가 발전함과 더불어 유교적 이념과는 관계없이 그 모습을 달리하면서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설 수 있는 것이 되었다. 관료자본주의 하에서도 관료적 출세의 길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전히 매력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출세주의사상과 치부주의사상은 相乘作用하면서 더욱 왕성한 致富慾(活動)과 더욱 왕성한 出世慾(活動)을 낳는다. 치부욕과 출세욕이 상호 보완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회에서는 치부를 위해서도 출세를 하여야 하고 출세를 위해서도 치부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왕성한 욕구가 충족될 기회가 있다고 확신하면 사람들은 욕구충족을 위해 맹렬한 행동을 취할 것이다. 60년대와 70년대의 고도성장기에 한국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맹렬히 축적활동을 벌였던 것은 다분히 이러한 동기가 발동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

3) Benedict, R.,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Patterns of Japanese Culture*, Boston, 1946.

다. 물론 이것은 근대자본주의의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즘 倫理에 의해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 열심히 축적활동을 하던 것과는 그 동기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 하겠다.

부귀추구사상은 본질적으로 富貴榮華를 과시하는 思想이다. 그것은 출세주의든 치부주의든 일정한 성공의 단계에 이르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誇示하지 않고서야 배겨날 수 없게 만든다. 지난날에 그토록 열심히 일하고 맹렬히 축적활동을 하던 사람도 부귀영화를 과시하기 위해서는 옛날처럼 열심히 일하지 말아야 하고 더 이상 맹렬한 축적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힘드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고 할 일이 있다면 남에게 시키고 아랫사람에게 시켜야 체면이 유지되고 신분지위가 상승된다. 勤勞思想은 빛을 잃게 되고 不勞思想이 추구되며 勤儉貯蓄思想 대신에 사치와 과소비사상이 널리 퍼지게 된다. 부귀영화추구사상은 이처럼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 누구보다도 일하지 않게 만들기도 하는 兩面性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치부와 출세를 겸비한 부귀영화추구사상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다. 열심히 일하고 맹렬히 축적을 하는 것도 스스로의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또 그러기 때문에 축적된 富를 개인적 만족이나 자손을 위해서는 아무리 소비하고 낭비하여도 상관없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Aquinas의 Summatheologica(神學大全, 1263~73)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아무리 축적된 자산이 많아도 필요한 개인적 소비 이상으로는 함부로 소비하거나 낭비하지 말아야 하고 남은 자산은 하나님의 處分에 맡겨야 한다⁴⁾고 하는 西歐사람들의 전통적인 사고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프로테스탄트들의 禁慾의 倫理觀도 바로 이러한 전통적 사상에 의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 부귀영화사상이나 체면유지사상에는 이와같은 금욕적 윤리관이 설 수 있는 여지가 적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설령 쓰고 남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사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후손들을 위한 것이다. 또 설령 근검절약으로 축적을 위해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것 역시 하나님과 사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으로 돌아올 후손들의 번영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그만큼 資本蓄積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4) 中山伊知郎編, 『經濟學大辭典』東洋經濟新報社, 1955, pp. 9~10.

企業利潤의 社會的 還元이나 企業의 社會的 責任에 대한 意識이 박약할 수 밖에 없다는 사정을 말해주는 것이 될 것이다.

IV. 傳統的 思想과 變形된 利己主義

현대의 한국사회는 과거의 외래사상인 儒敎와 佛敎를 일종의 基層文化로 삼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외래사상을 도입 흡수하고 있다. 이에 있어서도 특히 유교의 영향은 매우 크다. 사람들은 새로운 외래사상을 도입하면서도,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전통적 사상을 부정하면서도 부지불식간에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역시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교적 사고방식과 행동논리는 뿌리깊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家父長的 經營支配, 親姻戚主義經營, 縱的 人間關係의 중시, 情實人事, 勞使간의 主從的 關係, 溫情主義, 관료주의와 격식주의적 관행, 貴賤有別의 직업관과 노동관, 關尊民卑사상, 關 권지배, 기업활동의 關 권의존 등을 그 徵候群으로서 지적할 수 있다.

유교적 사고방식과 행동논리는 일본과 대만 등 유교전통의 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일본, 대만 등을 유교자본주의권으로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 나라가 모두 동일한 형태의 유교자본주의국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나라마다 전통적 사상의 구성에 차이가 있고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 이를테면 일본은 유교 이외에 불교와 일본 특유의 神道の 영향이 강하며 대만은 道敎와 불교의 영향이 크다. 이에 대해 한국은 불교뿐만 아니라 약간의 巫俗的 影響도 받고 있지만 어느 나라보다도 전통적인 유교의 영향이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은 지난날에 유교가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에서 가장 숭상되었고 가장 교조주의적으로 수호되어왔기 때문이라 하겠다.

원래 유교는 人倫主義에 입각한 일상적 修己治人의 道를 지향하는 것이다. 유교를 연 孔子는 仁(仁愛, 人愛)을 말하면서 人倫의 道의 절대성을 주장하였고, 이어 孟子는 인간의 본성인 仁義禮智를 옹호한 것으로 말하였다. 유교는 긴 세월을 거쳐 朱子學, 陽明學, 心學 등으로 전개되었으나 근본적으로는 역시 孔孟思想에 따르는 것이었다.

유교의 기본개념이라 할 수 있는 공자의 仁(愛)은 가족의 孝悌로부터 출발

하고 인간일반의 사랑으로 전개되며 이런 仁愛를 體得하는 者가 바로 君子이며 따라서 인애는 군자의 德(仁德)이 된다. 맹자는 孝悌의 仁을 분석하여 事親을 仁, 事兄을 義라 하고 이러한 인간의 심정을 良知良能이라 하여 仁의 선천성을 명시하였다. 이와같이 仁은 원래 가족사회의 親和의 사랑과 인간의 덕성을 말하는 것이지만 朱子에 이르러 性理學的 宇宙精神의 경지까지 높혀졌다.⁵⁾ 한국유교는 다분히 이런 흐름에 충실하였다.⁶⁾

이와같은 유교적 인애정신은 오늘날의 한국사회에서도 널리 강조되고 있고 그 영향력이 크다. 그 영향은 한국경제의 자본주의적 전개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은 일련의 징후군과도 직접 간접 관련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그것들은 한국경제의 자본주의적 활동을 그나름으로 유교적으로 加減, 修正, 補完, 變形시켜 왔다. 어쨌든 그렇게해서라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에서 그것은 그나름으로 경제의 자본주의화와 양립관계를 성립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적 인애정신 또는 인륜주의정신은 반드시 자본주의정신과 원활한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자본주의정신과 어긋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동태적인 자본주의정신은 利己心에 충일하고 利潤의 極大化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競爭을 하여야 하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경쟁에 이겨야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경제는 개별적인 경제주체간의 對立과 相剋을 통해 전체적으로는 균형과 發展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교적 인애정신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利己心을 말하기보다도 도리어 克己復禮爲仁⁷⁾을 강조하고 君子喻於義 小人喻於利⁸⁾를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克己, 讓步, 和合으로 사회의 안정과 균형을 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분명히 경쟁적이며 동태적인 자본주의정신과는 모순된다.

그런데도 한국자본주의의 전개과정은 이와같은 儒敎的 道德律이 그대로 실천되기에는 너무나 反仁愛的이고 利己主義的이다. 인애정신을 발휘하기 위한 克己보다도 자기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왕성한 利己心이 도처에서 분출되고 있

5) 『現代哲學事典』, 講談社現代新書(日), 1970, pp. 342~343.

6) 柳承國・柳正東・安炳周・李東俊, 『儒學原論』, 成大出版部, 1978, pp. 110~111.

7) 『論語』, 顏淵篇.

8) 『論語』, 里仁篇.

으며 유교정신이 경멸하는 致富活動이 도리어 물질적 생활의 최고 목적처럼 되고 있다. 이기심이든 치부욕이든 그것은 전형적인 단순 자본주의정신을 도리어 능가할 정도로 노골적이고 원색적인 방법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허다하다. 기업의 구성원은 사장이든 종업원이든 기업보다도 자기이익을 먼저 챙기려 하고 관료사회는 또 그것대로 국가사회를 위한 봉사보다도 먼저 자기이익을 더욱 챙기려 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관해서는 수없이 많은 실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왕왕 공식 비공식의 自己中心의 小集團利己主義 또는 內集團主義가 추구되기도 한다. 아마 이것은 출세를 위해 치부욕을 더욱 발동하고 치부욕을 충족하기 위해 출세욕을 더욱 불태우는 경향이 가져오는 相乘作用 때문이라 하겠다.

유교적 전통문화를 갖는 나라에서 어떻게 하여 이와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물론 이것은 본래적인 유교정신의 발로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적 문화와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이기심의 왕성한 발동은 다분히 인애정신의 출발점을 孝悌 즉 家族에 대한 사랑에서 찾는 家族的 道德原理가 利己主義의으로 變形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는 修身齊家治國平天下사상이 우선 自己完成부터 출발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이기주의적으로 변형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남을 위하기 보다는 우선 나와 나의 가족부터 만족한 상태로 만들어야 하겠다는 이기심을 위해 이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더 나아가 가족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이기심을 발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이기심을 발동하더라도 무방하다는 家族利己主義의 생각을 갖게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시 核家族化현상과 더불어 자기희생적 孝悌觀念의 회박화와 利己의 子女重視의 思想을 가져왔다. 또 그러기 위한 致富와 出世라면 얼마든지 합리화되고 정당화될 수 있는 것처럼 되었다. 유교적 전통의식은 단순히 변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歪曲되고 價值觀의 顛倒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이기주의는 利他行을 말하고 衆生濟度를 말하는 佛教의 가르침에도 맞지 않고 神을 위해 충실한 것과 마찬가지로 남을 위해서도 사심없이 봉사해야 한다고 하는 기독교의 隣愛精神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교와 기독교의 세력과 영향력이 큰 한국의 경우 유교적 전통의식의 변형으로 이루어진 이기심은 어떻게 극복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결과적으로 경제활동에 관한 한 불교적 이타행사상도 기독교적 인애사상도 현실의 강렬한 이기주의 앞에 거의

무력한 것이 되고 있다. 이는 불교적 의식형태나 기독교적 의식형태도 유교적 전통의식과 그 변형에 힘없이 同化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유교문화적 의식형태의 변형에는 Smith적인 利己心의 사상과 같은 근대적 개인주의사상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합리주의적, 경제학적 이론도 큰 몫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Smith가 말하는 이기심은 인간적 자연에 의한 것이고 이기심의 자유로운 발동은 勤勉과 節約을 가져오고 개인의 利得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神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調和를 가져오며 社會의 利益과 進歩를 위해 이바지하는 合理的인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유교문화적 바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變形된 利己主義 또는 다분히 沒共同體的, 沒社會의 利己心과는 그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사회경제적 배경과 문화적, 사상적 배경이 또한 다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기심은 곧 유교문화전통의 사회에 그대로 쉽게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이다. 결국 Smith적인 이기심도 그것은 유교문화적 의식형태의 변형과 마찬가지로 변형되어 왔고 결국 이에 동화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V. 結 語

현대의 經濟學原論들이 상정하고 있는 homo economicus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利潤極大化를 추구하고 家計活動에 있어서는 效用極大化를 추구한다. 한마디로 그것은 貨幣的 價値의 증대를 추구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경제활동의 본질적 일면을 추상화한 것이다. 경제활동이 다른 社會的 現象과 분리되고 독립된 사회에서는 이로써 훌륭한 이론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經濟活動이 다른 社會的 活動과 분리되지 않고 一體가 되어 있을 때 사정은 달라진다. 경제활동이 단순히 致富動機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出世動機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 당연히 이론은 달라져야 하는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 경제활동의 동기는 致富와 出世이다. 出世를 위한 致富동기와 치부를 위한 출세동기가 엉키어 相乘作用을 하고 있다. 出世活動이 경제활동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목적이 되기도 한다. 이는 한국자본주의가 역사적으로 官僚支配의 傳統을 이어받아 왔기 때문이다. 오로지 화폐적 효용의 극대화만 추구하는 homo economicus의 이론으로서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이다. 그러기 때문에 경제학은 왕왕 현실을 있는 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

로 설명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엉뚱한 말을 하기도 한다.

일찌기 茶山 丁若鏞(1762~1836)은 말하기를 ‘민은 흙으로 밭을 삼는데 官吏는 민으로 밭을 삼는다’고 하였다.⁹⁾ 관료 지배사회경제의 본질적 측면을 잘 표현한 말이다. 民은 經濟活動으로 생계를 영위하고 축적하지만 관료는 官職으로 경제목적 달성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에게 중요한 것은 생계(치부) 동기이고 관료에게 중요한 것은 출세동기가 된다. 관직에의 출세의 길은 일찍부터 중요한 경제적 수단이 되어 왔던 것이다. 官僚支配社會의 二元的 經濟活動形態에 관한 茶山의 命題는 현대의 한국적 관료자본주의의 이해를 위해서도 시사하는 바 크다.

치부동기와 출세동기가 상승작용하는 富貴追求社會에서는 Weber가 말하는 바와 같은 프로테스탄티즘의 倫理가 통용되지도 않고 또 될 수도 없다. 양자의 윤리 사이에는 일치하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설령 양자가 다 같이 蓄積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금욕을 한다 하더라도 그 동기와 목적은 다른 것이다. 역시 부귀추구사회는 그것대로의 이해를 위한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방법이 아쉬운 것이다.

치부동기와 출세동기가 상승작용하여 발휘되고 있는 강열한 욕구 속에 숨어 있는 利己心도 그것은 Smith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없다. 역시 그것은 전통적 基層思想의 利己主義的 變形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경제활동에 발현되고 있는 형태도 豫定調和的인 것과는 다른 특이한 것이 되고 있다. 이는 곧 한국자본주의 정신의 특이성을 말해주는 것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9) 丁若鏞 『牧民心書』, 제4권, 吏典.